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태스크포스 활동계획 개요

개요

2006년 10월 12-13일에 한국의 제주에서,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의 정책이행 위원회는 8개 분야의 기본 활동계획에서 일련의 우선적인 프로젝트와 활동을 추진하였다.

파트너십은 6개국이 모여서 구성하였고, 그 참여국은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 및 미국으로서 공기 오염, 에너지 안보 및 온실가스 농도 등의 문제와 각 당사국 내의 에너지 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도록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6년 1월 12일에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파트너십 취임 회의에서 각국의 각료는 기초부터 시작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통하여 각국이 공통으로 지닌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개발하고자 정부-산업체 연합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자 혁신적인 접근 방법을 개시하도록 하는 실행 계획에 합의하였다. 공공 기관, 민간 업체, 연구 기관의 전문가 및 각국의 지도자는 8개 주요 부문의 청정개발 사안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것은 즉, (1) 청정화석 에너지 (2) 재생 에너지 및 분산전원 (3) 전력발전 및 송전 (4) 철강 (5) 알루미늄 (6) 시멘트 (7) 석탄 채광 (8) 건물 및 가전설비 등이다.

정책이행위원회는 태스크포스의 업무를 가동하고자 2006년 4월 18-21일에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에서 회의하였다. 전체적으로 약 300명에 달하는 6개국의 정부, 업체 및 연구 기관이 그들의 업무를 시작하고자 참석하였다. 정책이행위원회는 태스크포스에게 그들의 업무 수행 지침을 제공하였고 동시에, 태스크포스의 각 분야와 주제의 상황에 적합한 프로젝트와 활동을 개발하도록 상당한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8개의 활동계획이 특정한 단기적 활동과 중기적 활동으로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었다는 것은 동 활동계획이 공식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태스크포스의 협력 개시 단계에서 이룬 성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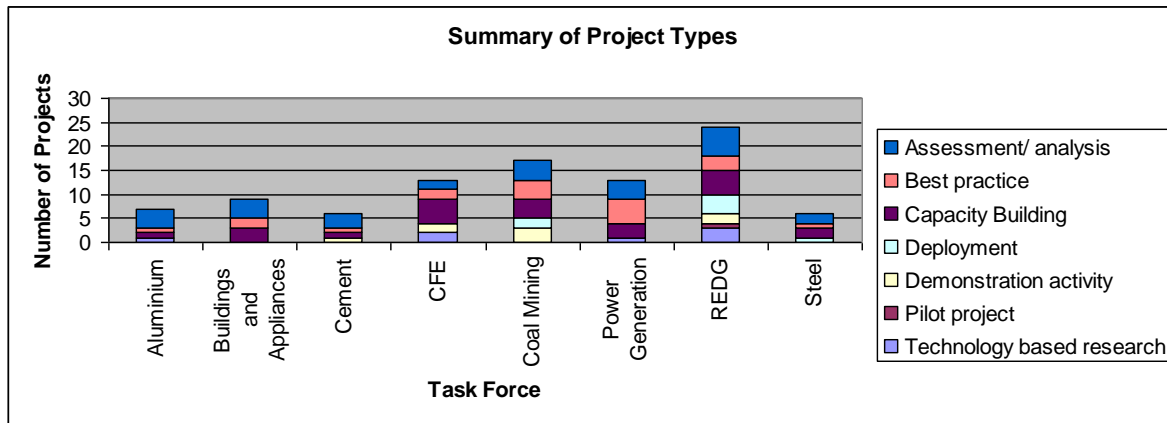
제주에서 추진된 활동계획은 파트너십의 사업에 첫 단계로서 해야 할 일이며 이와 동시에 참여국이 이행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에서 시작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계획은 청정개발과 기후에 관한 목적을 이루고자 앞으로 전개할 일련의 포괄적 활동을 위하여 중요한 첫 걸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초기 포트폴리오는



부문별 평가, 처리 능력의 구축, 모범사례의 확인 및 기술연구와 실증 등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림 1은 태스크포스가 구성된 프로젝트 종류의 대략적인 추정치이다.

¹참조 <http://www.asiapacificpartnership.org/workplan.pdf>.

그림 1. 태스크포스의 프로젝트 종류 요약



포트폴리오에서 서로 다른 프로젝트 종류의 비중은 현존하는 에너지 및 산업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상당한 개선을 이룰 기회의 모색과 더불어, 더욱 의욕적인 기술 프로젝트 및 특정한 시장 장벽의 극복에 관하여 진일보한 분석과 조사의 필요성 모두를 반영하고 있다. 활동계획 프로젝트의 뚜렷한 특징은 6개의 참여국에 있는 기업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미 확정된 모든 활동은 앞으로 기업과 관련될 것이며 많은 수의 활동이 기업체와 영리목적 협회에 의해서 우선적이며 전적으로 집행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 파트너십은 참여국 내에서 성공적으로 관 민의 동반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추가 프로젝트는 태스크포스, 또는 참여국에서 개발하거나 파트너십의 경험적인 판단과 필요 자원이 강화되는 경우에 따라 포트폴리오에 추가될 것이며, 태스크포스는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분야별 분석과 조사연구가 완료된 경우, 해당 프로젝트와 활동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개발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다음은 각 태스크포스의 업무 개요와 함께 각 활동이 진행하고 있는 사례이다.

청정화석 에너지 태스크포스



청정화석 태스크포스는 석탄, 원유 및 가스가 6 개의 모든 참여국에 필수 불가결한 연료로서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한다. 아-태 지역에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예상하여, 태스크포스는 화석연료 사용의 효율성과 환경적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온실가스의 배기, 공기 오염물질 및 기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감소할 수 있는 일련의 주요 개량 석탄 및 가스 기술을 확인하였고 그것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IGCC) 및 석탄으로부터의 수소 생산과 초초임계압 분말 석탄 등을 포함한다.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은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태스크포스는 이러한 기술 전개를 위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시장 장벽을 제거하고, 청정화석 에너지의 유용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다.

- ▶ 호주는 연소 후 포집 기술을 개발하며 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다른 참여국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 ▶ 호주와 미국은 액화천연가스의 수송과 국경통과 가스 배관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하며 취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들 국가는 처리과정 및 수송 기술을 제고하고 있다.
- ▶ 일본과 미국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과 기타 청정에너지 기술에 관한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자 청정석탄 워크숍을 공동 후원하고 있다.
- ▶ 일본은 호주와 함께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석탄층의 메탄 복구를 위한 기술 제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발생 결과에 관한 문제를 개선할 것이다.

재생 에너지 및 분산전원 태스크포스

재생 에너지 및 분산전원 기술은 모든 6 개 참여국으로 하여금 에너지 이용, 에너지 안보, 에너지 결핍 층의 축소 및 증가하는 화석연료 비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의 완화 등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재생 에너지와 분산전원 태스크포스는 재생 에너지 기술을 촉진하고자 실질적으로 배기가 전혀 없는 수소, 태양열, 지열 및 풍력과 같은 자원을 사용하도록 한다. 태스크포스는 분산전원을 모델로서 추진하여, 배기를 격감시키고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에너지 결핍 인구 층의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의 이용을 증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추진하고자, 태스크포스는 전력망의 사용 지역과 비사용 지역 모두에 적용되고 비용 경쟁력을 지닌 기술에 주안점을 두고서, 재생 에너지와 분산전원의 기술 이전에 대한 장애 요인과 그 전개를 위한 금융 문제를 규명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 미국은 인도와 중국의 파트너로서 각 지역의 가용 연료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각 농촌의 실정에 맞게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주고 있다. 가스화 생물연료 엔진은 적절하고 확실한 전력 공급이 부족한 약 4억 인구에 달하는 농촌 거주민에게 어느 정도는 전력 공급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학교와, 의료시설, 소규모 산업체 및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전력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 ▶ 호주는 미국과 중국의 파트너로서 저렴한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고자 고효율 태양열 에너지를 개발하고 확립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계획의 목적은 10억 와트(GW)가 넘는 태양광 집열 발전 설치를 전개하는 것으로서 태양 에너지가 전 참여국의 에너지 시장에 걸쳐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 ▶ 한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다른 참여국과 협력하여 독립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 사용을 목적으로 최선의 재생 에너지 병합을 확인하는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 ▶ 호주와 중국은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 발전이나 수송 수단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천연가스의 에너지 함유량과 석탄층 메탄을 제고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참여국의 목적은 태양광 화석 병합 연료를 위한 최대 규모의 시범 발전소를 건설하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해당 기술을 시험하는 것이다.
- ▶ 미국은 전기와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석유 코크스 오븐 가스를 사용하는 열병합 시스템을 전개할 것이다. 중국에서의 이러한 시스템 사용은 공기의 질과 더불어 인간의 건강을 향상시키며 심각한 온실가스 배기량을 줄이게 할 것이다.

전력발전 및 송전 태스크포스

6개 참여국은 전 세계 전력의 49 퍼센트를 생산한다. 그러므로 이들 참여국에서의 전력발전과 송전 효율성 향상은 수백만 톤의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중국과 인도가 모두 자국 내 농촌 지역에 현대화된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와 모든 참여국 내에서 자국의 발전 용량을 증가할 필요성이 대두함으로, 전력이 차지하는 이와 같은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력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참여국 내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의 저감 능력은 상당한 정도에 다다르고 있다. 전력발전 태스크포스는 이미 확정된 실행 계획을 통하여 모든 참여국에 효율성이라는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전력발전의 모범사례, 송전과 배전의 모범사례, 수요관리 모범사례 및 정보의 공유 등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활동을 건의하였다.

- ▶ 참여국은 현장 방문, 전문가 심의 방문, 워크숍, 정보 공유를 위한 처리능력 구축 및 전력발전소의 효율성과 오염 감소의 제고를 위한 기술 적용 등을 포함한 제반



활동을 한다. 그러한 기술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최적화 연소 방법, 발전소 배연의 이산화황의 감소 및 증기발전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공 지능 제매 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첫 출발로서, 미국은 2006년 10월에 인도, 중국 및 한국의 발전소 엔지니어를 위한 회의를 주최하였다.

- ▶ 인도, 미국, 일본 및 호주의 공공 서비스 기관은 미국과 일본에 현장 방문하여 발전소 운영 및/또는 노후 증기 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가스 터빈 가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방문은 발전소의 서비스 기간과 전력 공급의 확실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발전소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 조치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 ▶ 참여국의 전력발전소는 더욱 효율적인 시장과 규정 체계를 통하여 당면한 문제에 대처하고자 협의체를 설립한다. 동 협의체의 초기 목적은 더욱 확실하고, 저렴하며 지속 가능하고, 건설한 에너지 서비스를 위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에 대한 투자 증진에 관하여 상호 간의 이해를 확립하는 것이다.

철강 태스크포스

참여국은 현재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의 57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생산은 인도와 중국이 주도하면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철강 태스크포스에 관하여 참여국은 전 세계 철강 부문에서 배기와 에너지 소비를 저감하는 기술을 규명하고자 협력하여 왔다.

- ▶ 태스크포스는 철강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에너지 절약 기술을 수록한 첨단 청정기술 편람을 온라인으로 발간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 ▶ 참여국은 기술의 전개, 재활용 비율 및 청정기술과 그 시행에 대한 장애 요인을 포함한 자국의 철강 산업 현황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참여국은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 및 기타 배기 문제를 줄일 가능성을 규명하며 조강 생산을 위한 일반적인 범위 안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부문별 실행 지표와 벤치마크를 개발하도록 한다.
- ▶ 참여국은 에너지 사용, 공기 오염 및 철강 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의 한 부분으로써 재활용과 폐품 사용을 증진하도록 한다.

알루미늄 태스크포스

참여국은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의 약 37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알루미늄 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의 하나로서 특히 개발도상 국가에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다. 파트너십을 통하여, 각국은 이 분야의 산업을 지구 상의 과불화탄소의 저감 목적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며 알루미늄 생산 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와 배출량 관리 문제를 취급할 것이다. 참여국은 모범사례의 실행을 촉진하고, 기술적 지원을 증진하며, 가장 이용 가능하고 저렴한 기술의 전개에 대한 장애 요인을 규명할 것이다. 6개 참여국의 알루미늄 협회는 알루미늄 생산 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영향을 개선하며 동 산업 부문에 걸쳐서 기존의 협력 관계를 증진한다는 양해각서를 2006년 5월에 체결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양해각서에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여국의 알루미늄 협회가 태스크포스의 향후 목적을 위하여 자금 지원을 상호 간 강화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할 것이다.

- ▶ 알루미늄 태스크포스 활동계획 아래에서, 참여국은 온실가스에 주된 요인으로서 복합물질 등급인 과불화탄소 배기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참여국은 표준시설의 구체적인 규정을 채택하고, 벤치마크 평가를 완료하며, 기술향상의 가능성을 규명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교육 워크숍과 배출량 벤치마크 활동은 2007년에 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 ▶ 플루오르화물은 알루미늄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로서 지역적인 식물군과 동물군의 생태계에 심각한 환경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호주 및 중국과 함께 플루오르화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알루미늄 제련 작업자에게 동 물질의 배출에 따른 영향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배출 감소 체계를 규명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 ▶ 중국과 인도 및 호주는 고등급의 보오크사이트 잔유물을 줄이도록 하는 세계적인 노력에 부응하여 고규산형 보오크사이트 처리에 있어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으로 실용적인 방법을 개발하고자 서로 노력하고 있다. 참여국은 알루미늄 생산 과정의 잔유물로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물질인 보오크사이트 **잔유물** (일명 레드머드 - 알루미늄 제련 폐기물)의 기술적이며 경제적으로 유용한 사용처를 개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 ▶ 미국은 알루미늄의 재활용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재활용은 기초 금속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단지 5%만 사용하고 과불화탄소의 배기 문제 및 알루미늄 처리와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을 피한다. 이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재활용 비율의 기준치와 진행 과정을 감시하는 연간 보고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시멘트 태스크포스

시멘트는 사회 기반 시설에 필수적인 재료이며 전 세계에 걸쳐 경제 개발의 토대를 제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시멘트의 생산 공정은 에너지 집약형이며 연료와 원자재는 많은 양의 천연자원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시멘트 산업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약 2 십 2 억 톤에 달하였으며 지구 상에서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약 5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 비용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40 퍼센트까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성의 개선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잠재력이며, 동시에 연료의 연소로 발생하는 오염의 대부분을 극적으로 줄이게 한다는 것이다.

참여국은 전 세계 시멘트 산업의 61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멘트 태스크포스는 이산화탄소의 배기를 줄이도록 하는 장기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의미심장한 잠재력이 있고 청정에너지 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한 기술을 더욱 보급하도록 협력하면서 에너지를 보존하고자 한다.

- ▶ 호주와 중국 및 일본은 최우수 시멘트 연구소를 창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동 연구소를 통하여 참여국은 친환경적인 기능과 에너지 효율성 및 시멘트 생산을 위한 대체 연료와 원자재 사용의 개선 등에 관한 모범사례와 벤치마크를 공유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최우수 시멘트 연구소는 과학기술 장학금을 제공하여 산업체 간에 전문가를 교환하도록 하여 정보의 공유와 기술의 개발 및 전개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 ▶ 일본 내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은 참여국 간의 정보 취합과 조정을 위하여 협력하였고 동시에 자료 수집을 위한 파트너십 시멘트 의정서 작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일본과 미국은 배출량 저감의 가능성 평가를 위한 주요 기능 지표를 선정하고 벤치마크를 개발하여 최우수 시멘트 연구소의 필수적 자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 ▶ 미국은 두 가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첫째는 시멘트 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농도 저감과 청정생산기술의 전개에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의 장애 요인과 동시에 장려책을 규명하며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는 콘크리트가 어떻게 특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그로 말미암아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게 하는가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 ▶ 호주는 시멘트 공장의 폐열을 전력발전으로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잠재적 경제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검토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고, 그 효과가 입증된다면 호주 내의 공장에서 병합 발전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할 것이다.

석탄 채광 태스크포스



석탄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고 널리 분산된 화석 연료이다. 석탄 매장 비록 널리 퍼져 있다 하더라도, 채광할 수 있는 전 세계 매장량의 58%가 4 개의 참여국에 자리 잡고 있다. 즉, 미국 (27%), 중국 (13%), 인도 (10%) 및 호주 (8.7%) 이다. 국제 에너지 기관에 따르면, 2030년에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3 배 이상으로 늘어나 전 세계에 걸쳐 발전되는 전력의 33% 정도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 채광 태스크포스는 석탄 채광과 선광 (選鑛)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석탄의 환경적 영향을 감소하며, 석탄 채광의 안전 비율을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은 선탄 (選炭)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최선의 기술을 적용하며, 탄광의 메탄을 포집하고, 탄광 인력의 보건과 안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 ▶ 참여국은 석탄의 질을 향상하고, 채광을 증진하며 비용을 절감하고자 참여국 상호 간에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고회분 인도석탄의 선탄 기술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미국이 인도에서 주최할 예정이다. 선탄에 관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채광 후에 석탄의 질을 향상시키며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하고, 석탄 연소로 발생하는 오염을 감소시킬 것이다.
- ▶ 메탄가스는 어떤 탄광에서는 가치 있는 자원으로 되어 현장에서의 전력발전으로 사용하고자 포집되거나 천연가스 공급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미국은 탄광의 메탄 포집과 회수에 관하여 대표적인 적용 사례를 교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참여국은 이러한 청정에너지 자원으로 말미암아 배기 문제가 감소하는 한편, 이득을 얻게 되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 ▶ 석탄 채광 태스크포스의 목적은 참여국 내에서 모범사례의 공유를 통하여 대표적인 보건과 안전 시책을 촉진함으로써 재해가 전혀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시책이 채택될 경우, 그로 인하여, 매년 상당수에 달하는 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참여국 간에 안전 시책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자 워크숍이 워싱턴 DC 에서 열릴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호주와 중국은 중국 내 시범 탄광에서 선도적인 안전 시책을 시행하도록 양해각서에 이미 서명한 바 있다.
- ▶ 호주는 참여국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 광산업을 위한 선도적 시책의 지속적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프로젝트로서 편집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탄광의 모범사례와 최고 효율성의 탄광 기술에 관한 필수적 개요를 제공할 것이다.

건물 및 가전설비 태스크포스

건물과 가전설비는 합쳐서 참여국 내에서 전체 에너지의 20에서 40 퍼센트를 사용하고 있다. 가전설비, 사무실과 소비자 사용의 전자제품, 조명 및 건물 구조와 작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전력 수요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고자, 태스크포스는 특히 주거용과 사업용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인 혜택과 에너지 공급에 대한 투자를 다양하게 하도록 이끌 것이다.

- ▶ 태스크포스 프로젝트는 신축, 또는 기존 건물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이해와 기술을 증진하고자 건물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에너지 효율을 위한 선택 방안을 규명하여 이용하도록 통상적인 체계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알리며, 이러한 목적의 실증이 가능한 건물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건물 운영과 관리를 향상하고자 공공, 또는 민간 부문의 건물 소유주와 관리자를 위한 교육 등을 시행하고자 한다. 태스크포스는 기존 건물에서 10에서 15%의 에너지 절감을 하고자 어떤 저렴한 비용으로, 혹은 전혀 비용 없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를 실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 태스크포스는 최소한으로 준수하여야 할 효과적인 건축법규 제정을 고려하고 있고 대형 상용, 또는 주거용 건물에 적용할 모범사례로서의 건축 설계 방식을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또한 건물의 에너지 절약성을 실증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이 향상되도록 건물인증 제도에 관하여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건물인증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더 큰 촉매제가 될 것이다.
- ▶ 참여국은 가전제품에 관한 시험절차의 통일 방안을 개발하고 소비자의 인식과 정부 구매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가전제품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또한 예비 전력이나 사용 대기 전력으로서의 전력 낭비를 줄이도록 할 것이다.
- ▶ 태스크포스는 에너지 절약 실천 계약, 공과금에 대한 유인책 및 시범 건물 등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공공, 또는 일반 건물을 위한 금융과 임대료에 따른 선택 조항의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